

비즈니스맨의 조건 상상력과 창조성

“문제(problem)와 장애(obstacle)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장애는 대처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아브라함 캐플란은 말한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꼭 해결해야만 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는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수치에 매달리는 분석적 사고만으로 모순을 이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게리 함멜에 따르면,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지식의 80%는 기업의 활동영역 밖에 존재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좋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면 알아도 소용없다. 비판적인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안적인 정책제시,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바람직해야 한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바람직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행합일(知行合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스마트한 토론을 시작하고, 스마트한 액션을 준비해

야 한다.

지식이 아닌 지성으로 꿈 꾸다

미래는 꿈과 이야기(Story)의 시대다. 영감이 중요하다. 영감이란 상상력과 통찰력의 결합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다. 시사해석력과 문화주도력의 결합이다. 생활에서 발견해야 한다. 일상의 재발견이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비밀상성,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

하여 비즈니스 상상력이 요구된다. 고객, 기업, 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상력 말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아닌 지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지식(intelligent)이 포착하고 조작하며 재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면, 지성(intellectual)은 음미하고 사색하며 회의하고 논리화하며 비판하고 상상한다. 지성의 역량은 해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질문으로 전환시키는 역량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학문적 깊이가 있는 직관력, 무서운 창조력, 유쾌한 파괴력 등이다.

CEO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구성원 혁신이 필요하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변화시키

고, 비즈니스 로직을 개혁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기술이 모자라면 배우면 되지만 잘못된 습관(문화)은 고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 올바른 문화가 요구된다.

꿈꾸는 시대, 꿈꾸는 회사,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 성숙한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철학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손을 뻗쳐 이웃의 생각을 수용하고 전해주어야 한다.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문화라는 그릇이 없으면 그 정보들을 담아내지도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담지도 못하게 된다.

생각하지 말고 상상하라. 그리하면 상상력이 여러분을 구할 것이다. Low Tech, High Touch 시대다. 1%의 기술과 99%의 디자인이 결합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라. 무엇에건 미쳐보라. 미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미침에는 가치가 있다.

진정한 프로는 철저한 아마추어

21세기에는 바람직한 문화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21세기 블러(blur) 시대에는 불변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믿음만한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불변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어떠한가.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다. 그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잘 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멀 수 있다.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핵심인력이다. 핵심인력은 바로 잠수함 속의 흰 토끼와 같은 존재이다.

잠수함에서 토끼를 키우는 이유는, 토끼가 잠수함 속의 산소 함유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토끼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죽은 지 일곱 시간이 지나면,

잠수함 속의 사람도 산소 부족으로 죽고 만다. 천재급 인재들이 그 잠재된 천재성을 발휘하기 위해 헝그리 정신이 필수적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스포츠 과학 앞에서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한다. 지난 월드컵 때 4강 신화의 감동은 히딩크의 스포츠과학으로 가능했다. 누군가는 천재를 너무 배려해 주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가 살면 100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에는 천재들이 많다. 그러나 그 천재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평등주의. 그들이 우리와 달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오로지 그들이 우리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을 만큼 위대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인다.

진정한 프로는 철저한 아마추어이다. 특별한 칭찬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가치있는 작업과 소수의 안목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오하고 명심해야 할 일종의 직업서약이다. 초심은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배우는 즐거움을 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 무한한 상상 펼쳐야

디지털 시대 휴가 제안.

‘핸드폰을 끈다. 컴퓨터를 끈다. 책을 편다. 바다로 간다. 세계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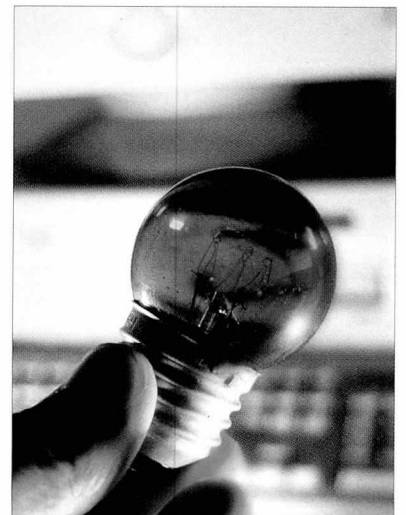
인터넷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해서 생기는 멋진 점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이다. 디지털이야말로 사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여전히 책 읽기는 중요하다. 다만, 디지털 시대 책 읽기는 하이퍼 리딩(hyper leading)이다. 진정 사물을 보게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지식이다. 화담 서경덕의 책 읽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학문은 글 읽은 것을 일삼지 않고 오로지 이치를 찾는 것을 위주로 하여 이치를 터득한 뒤에 글을 읽어서 증명하였다고 한다.

진실로 자기 시대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상상하라. 그리하면 상상력이 여러분을 구할 것이다. Low Tech, High Touch 시대다. 1%의 기술과 99%의 디자인이 결합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라. 무엇에건 미쳐보라. 미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미침에는 가치가 있다.



은 가난하지만, 과거의 풍부한 유산과 미래의 희망 속에 사는 사람은 부유하다. 분석되지 않는 경험은 아무 쓸모도 없다. 30년의 베테랑. 추억으로 남은 어제를 사랑하고 완성되지 않은 오늘을 사랑하고 희망으로 맞을 내일을 사랑하라.

‘포기란 배추나 셀 때 필요한 말이요, 실패란 바느질 할 때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경기가 나쁘더라도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말장난은 개그의 소재만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유행을 좇는 대신에 매니아가 되라. 기술로 승부하는 대신에 마음으로 들어가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보단 상상할 여지를 남겨두라. 시장에서 생선을 사기보단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라. 정보를 머리로 받아들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라.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가 훨씬 어렵다. 오직 과정에 대한 치밀함이 생명인 현장. 상상은 CEO만 하는 게 아니다. 실무자들도 해야 한다. 그것도 현장실무자라야 현실에 뿌리박은 상상을 할 수 있다.

상상은 문화다. 상상하기 전 불가능했던 것이, 상상 후 가능한 것이 된다.

창조형 인간으로 살자

C형 인간이어야 한다. Creativity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 Contents 지식의 콘텐츠화, Computer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 Coffee 커피 한 잔의 여유, Change 변화에 열린 사고 등.

빌 게이츠는 1년에 두 번 은둔하면서 100여권의 보고서를 독파한다. 채택된 보고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전달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행화한다. 안철수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책을 통해서 고객들과 대화한다. 그가 책을 많이 쓰게 된 것은 그의 메모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발해야 할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영 전략에 대해서도 메모를 한다. 항상 새로운 생각들을 메모하고 그것들을 정리하여 개발 아이디어로 쓰고 책을 펴내기도 하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을 창조한 사람, 에디슨은 500만개의 아이디어 다이어리를 자랑한다. 에디슨은 독특한 발상법으로 창조성 구현방법을 제시해준다. 첫째, 역발상이다. 레코드판을 역회전시키는 습관을 가졌다. 둘째, 좌충우돌 발상이다.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프로젝트끼리 좌충우돌 하게 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셋째, 저수지 발상이다. 머리가 곧 저수지 역할을 하는데, 저수지에 많은 사실, 경험, 공상 기억을 부으면 화학작용으로 영감이 탄생한다. 넷째, 낚시 발상이다. 낚시는 드리우지만 미끼를 달지는 않는다. 오로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낚기 위해 낚시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감 발상이다. 청각장애인이었던 에디슨은 오감을 열고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였다. 영감을 창안하는 내적 존재인 리틀 피플(little people)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영감 획득의 시작이자 끝이다.

창조력을 두 배로 발휘하기 위한 발상법 10단계, ① 아이디어 다이어리를 준비한다 ② 주제를 설정한다 ③ 정보를 수집한다 ④ 메모한다 ⑤ 어린아이처럼 상상한다 ⑥ 발상을 전환한다 ⑦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⑧ 아이디어 맵을 그린다 ⑨ 아이디어 다이어리를 완성한다 ⑩ 실행한다.

‘철저한 아마추어’의 ‘상상력’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C형 인간’. 우리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김원제 디지털컬리스트·언론학 박사)

